

#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최근 변화가 의미하는 것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및 일본과의 교역량을 다 합쳐도 중국 한 나라와의 교역량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외교 문제까지 고려하면 중국의 변화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 과연 중국 공산주의가 시장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시장경제 등의 체제로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그 체제는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와 경제 측면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노동정책은 핵심적인 주제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저숙련 농촌인력이 무한공급되던 시대가 끝나고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 등 동부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이광(蔡昉)의 글은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의 그동안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확대 정책이 최근 대졸 청년 실업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을 중국은 우리보다 더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는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여성 중심의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병행해서 발전해왔으면서도, 이제 다국적기업의 단순 생산하청기지를 벗어나 스스로 기술개발과 브랜드 구축 전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 경제구조의 변신을 의미

한다. 이러한 중국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는 빠른 임금인상 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 가운데 저부가가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향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하청생산기지가 아니라, 고임금을 배경으로 확장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다. 사업구조를 어떻게 재구축하든, 중국 내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나 부가가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은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중국 노동시장의 인력난과 그로 인한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빠르게 신장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정책에서도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황경진의 글은 그러한 점에서 중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 및 환경 여건과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10년 난하이(南海)혼다자동차 부품회사의 파업을 비롯한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과 체제 내 분쟁의 경계를 넘나드는 집단행동의 빈발은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Chan, C. et al.이 쓰고 있듯이 중국의 단체교섭은 아직은 노동자 주도형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당-국가 주도형으로 유인되고 있지만, 현장의 정서를 당과 국가가 완전히 장악해나가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들이 마지막으로 전망하고 있듯이 중국의 정치체제와 노동정책하에서 당분간 노동자 주도형 단체교섭, 혹은 폭동에 의한 단체교섭이 일반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서구적 의미의 노사간 게임의 규칙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현장 노사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리스크를 던져주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여러 기업이 파업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실정

에 맞는,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인사노무관리를 더욱 고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의 관측을 넘어서서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방향은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구와는 다른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온 중국에서 향후 어떤 노동체제가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토대로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정책과 기층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외부의 시민단체 등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체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중국이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어떻게 노동외교와 산업교류에 있어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등을 빠르게 올려서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하는 것은 여전히 수출이 총수요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거꾸로 배워야 하는 경제운용 방향이 아닐까? 또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어떤 노동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도 보다 더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